

# 르호보암, 여로보암, 두 왕

\* 10/8(금) 열왕기상 ⑤ 12-14장

통일왕국	분열왕국	
남유다 / 북이스라엘 12-22장		
<p>▶ <b>두 왕, 두 왕국</b> 12:1-24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세겜에 모인 온 이스라엘</li><li>· 원로들의 지혜 vs. 청년들의 자문</li><li>· 포박한 결정, 무거워진 멍에</li><li>· 르호보암 vs. 여로보암</li></ul> <p>▶ <b>이스라엘 왕 여로보암</b> 12:25-14:20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여로보암과 두 금송아지</li><li>·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</li><li>· 여로보암의 죄</li><li>· 아히야의 예언</li></ul> <p>▶ <b>유다 왕 르호보암</b> 14:21-3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르호보암의 죄</li><li>· 금 방패 시대에서 놋 방패 시대로</li></ul>	<p>유다 왕 아비암 15:1-8</p> <p>유다 왕 아사 15:9-24</p> <p>이스라엘 왕 나답 15:25-31</p> <p>이스라엘 왕 바아사 15:32-16:7</p> <p>이스라엘 왕 엘라 16:8-14</p> <p>이스라엘 왕 시므리 16:15-20</p> <p>이스라엘 왕 오므리 16:21-28</p>	<p>이스라엘 왕 아합 16:29-22:40</p> <p>유다 왕 여호사밧 22:41-50</p> <p>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22:51-53</p>

## Before 줄치며 읽기

한결 같은 신앙의  
중요성을 묵상하며  
통독해 보십시오.

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.  
경고되었던 분열이 시작됩니다.

## • 두 왕 이야기① : 금 방패에서 놋 방패로

온 이스라엘이 '세겜'에서 모입니다.  
그들의 왕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(수 24:1-27, 24:32).

## After 묵상하기

하나님을 신뢰합니까?  
아니면, 스스로를  
보호하는데 더 급급합니까?

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,  
애굽에서처럼 고역을 당했습니다(12:4, 출 1:14, 2:23).  
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왕이 필요했습니다.

솔로몬은 왕이 되어,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.  
그의 아들 르호보암, 잘못 듣고야 말았습니다.

지혜로운 자문 대신, 악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(12:7, 13-14).

## 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  
두란노 HOW주석  
성서유니온 열왕기  
통성경 길라잡이

모세의 요구에 압제를 강화한 바로처럼  
'전갈 채찍'으로 바꾸는 강경 노선으로,  
르호보암의 통일왕국은 끝나 버립니다  
(12:16, 20, 출 5:1-21).

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(12:15).

바로가 마음이 ‘여호와와 말씀대로’ 강박해 졌고(출 4:21, 7:3-4, 13),  
‘하나님께서 부리시는’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으며(삼상 16:15-16, 23, 18:10),  
왕국이 둘로 나뉜다는 ‘말씀대로’, 왕국이 찢어졌습니다.

여호와와 주권 하에 역사는 흐릅니다.

사람의 선택 가운데,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됩니다.

인간의 자유에 대해,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.

바로와 같은 마음의 완고함이 <분열>을 촉진시켰습니다.

아버지의 금 방패 시대가 가고, 아들의 놋 방패 시대가 옵니다(14:26-27).

푸른 평화의 계절은 지나가고, 붉은 전쟁의 계절이 왔습니다(5:4, 14:30).

#### • 두 왕 이야기② : 모세에서 아론으로

애굽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,

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불러냈습니다(12:2-3).

백성들을 대표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,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.

모세는 바로 왕조 아래,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,

여로보암은 다윗 왕조 아래, 노예처럼 생활 하던 ‘온 이스라엘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(12:20).

‘모세와 같이’ 부르심을 받았지만,

금송아지를 만든 ‘아론 같이’ 변질되는데,

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(12:28-33).

“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

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... (14:11).”

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. 그 길의 끝은 영원한 <파멸>입니다.

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위에 앉히셨습니다. ‘다윗의 길’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(11:37-38).

다윗과 같은 왕조를 약속 받았음에도,

‘그들의 주’를 따르게 될까 조바심이 납니다(12:27).

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합니다(12:28-29).

“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

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(잠 29:25).”

어떤 소리가 귀에 더 크게 들리십니까?

내 현실에 매몰되어,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? 조금함은 신앙의 걸림돌입니다.